



# — 식량과 — — 비료 —

2022년  
6월호



1. 회원사 동경
2. 협회 주요 활동
3. 무기질 비료 관련 동향
4. 농정 이슈
5. 무기질비료 수급상황
6. 무기질 비료 우수성 홍보
7. 이달의 주요 인사
8. 회원사 제품소개



##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1 회원사 동정

### □ 남해화학(주)

○ 비료 원재료 안정적 확보 위한 MOU 체결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 계열사이자 국내 최대 비료 공급사인 남해화학의 하형수 대표이사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국제비료협회(IFA) 주관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안정적인 비료 원재료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의 공급사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PT Parna Raya사 및 글로벌 트레이더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사와 MOU를 체결하며 비료의 주재료인 암모니아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MOU를 체결한 3사는 향후 수력발전을 이용한 그린 암모니아 생산 사업과 저탄소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ESG 신사업도 공동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이스라엘 및 캐나다 염화칼륨 공급사들과도 협의를 진행하여 올해 잔여 필요물량 20천톤과 내년도 연간 소요량의 약 70%에 달하는 90천톤의 물량 공급을 확보 받아 원활한 비료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해화학 하형수 대표이사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이 일어나 비료 원재료 공급 부족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계 주요 원재료 공급사들과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2022. 6. 2. 농기자재신문 기사내용 인용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 (주)팜한농

### ○ 완효성 비료 ‘한번에측조’, 잘 나간다

- 5월까지 47만 포 판매, 이미 지난해 판매량 뛰어넘어... 동기 대비 81% 증가



팜한농의 완효성 비료 ‘한번에측조’가 농가 입소문에 힘입어 지난해 전체 판매량(39만 포)을 일찌 감치 뛰어넘었다. ‘한번에측조’는 지난달 18일 현재 47만 포가 판매돼,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26만 포) 대비 81%나 많이 팔렸다.

‘한번에측조’는 모내기할 때 1회만 처리하면 수확할 때까지 더 이상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국내 최초 100% 코팅 완효성 비료다. 질소, 인산, 칼리를 모두 코팅하고 양분이 용출되는 속도를 세밀하게 조절해, 벼의 생육에 맞춰 필요한 만큼의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준다. 질소만 코팅된 일반 완효성 비료는 200평당 40kg(2포)을 사용해야 하지만, ‘한번에측조’는 절반에 불과한 20kg(1포)만 사용해도 돼 노동력이 획기적으로 절감된다.

또한 ‘한번에측조’를 사용하면 벼 알곡이 여물 때까지 양분이 충분히 공급돼 쪽정이가 적게 발생하고 이삭 및 알곡을 충실히 맺게 하며, 미질이 향상되는 등 고품질 쌀 생산에 많은 도움이 된다. 100% 코팅 비료라 가루가 발생하지 않아 측조시비가 막힐 우려도 없다. 양분 유실이 없어 이끼 발생이 적고, 옷자람으로 인한 도복 피해도 예방한다. 생육 기간이 짧은 조생종과 이모작 재배에는 ‘한번에측조 스피드’가 좋다. 벼 등숙기에 비료 성분이 용출되면 벼가 잘 익지 않는데, ‘한번에측조 스피드’는 조생종 및 이모작 벼의 등숙기 이전에 비료 성분 용출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벼가 덜 익으면 발생하는 청미(푸른빛을 띠는 쌀)도 거의 없다.

‘한번에측조’ 시비 후에는 분얼이 완료되는 이앙 후 40일경까지 계속 논물을 대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출수 10일 전부터 이삭이 여물 때까지 논물을 대면 벼에 양분이 충분히 공급돼 고품질 쌀을 수확할 수 있다. ‘한번에측조’를 사용해 신동진벼를 재배한 전남 함평군의 이재궁 씨는 “‘한번에측조’ 사용 후 엽색이 연하고 분얼도 더딘 것 같아 이삭거름을 줘야 하는지 고민했는데, 중간 물떼기 일주일 후에 다시 물을 대고 3~4일 지나니 생육이 좋아졌다”며, “일반 완효성 비료에 이삭거름을 추가로 주었을 때보다도 벼가 훨씬 더 잘 자라 지금까지 사용해 본 비료 중에 가장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재궁 씨의 상세한 사용 후기는 팜한농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022. 6. 3. 월간월에 기사내용 인용





# 식량과 비료

-2022년 6월호-

## □ (주)풍농

○ 신제품 기능성 이삭거름 NK비료 5종 !

- " 살포는 편리하고! 효과는 빠르게! 이삭은 알차게!"



드론NK  
34-0-12

하이롱NK  
12-0-30

엔피코명품NK  
18-0-10

한포로NK  
30-0-12

NK탑24  
24-0-13

(주)풍농(대표이사 송상재) 신제품 벼 이삭거름용 기능성NK 출시로 성수기 노동력이 부족한 영농작업 편의성 증진과 작물생육 향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신제품 '드론NK(34-0-12,색상요소 함유)' 비료는 고농도 질소양분 함유로 벼 이삭거름 및 원예, 과수 옷거름사용시 대단위 넓은 면적을 손쉽게 살포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능성 색상 요소 함유로 드론활용 등 항공살포시 시비확인성 및 시비효율 개선, 작물생육향상에 효과적인 비료입니다. 항공살포 뿐만 아니라 막힘없는 기계살포 가능, 고농도 질소양분과 칼리양분 균형함유로 안정적인 이삭수 확보 및 등숙을 향상, 벼 후기 생육증대와 과실의 맛, 당도, 때깔향상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가능합니다.

- 고농도 칼리양분함유 '하이롱NK(12-0-30)' 비료는 도복발생 심한 논, 질소질 과다논에 효과적인 기능성NK비료로 벼 등숙을 향상과 미질 증대에 효과적이며, 입상염화가리 대체로 사용시에도 효과가 뛰어난 기능성 이삭거름입니다.

- 또한 한포로NK(30-0-12), NK탑24(24-0-13), 엔피코명품NK(18-0-10) 등 고농도, 중농도, 저농도의 다양한 NK비료는 이삭거름용으로 농업인 기계시비 편리성향상과 선택의 폭을 넓혀 이삭거름시기 날씨, 품종, 벼 생육수준을 고려하여 농가의 여건에 맞게 선택함으로써 재배 안정성이 뛰어나 농업인들의 호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 엔피코명품NK비료는 고온 다습한 날씨와 비료 살포시 기계 막힘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자 표면을 더욱 매끈하고 단단하게 제조했으며, 흡습과 고결을 줄이고 벼 도복 경감 및 생육향상을 위해 다량의 규산, 석회를 함유하여 제조되었습니다.

- 벼 이삭거름 사용량은 드론NK 600~700평/1포, 한포로NK 600~900평/1포, NK탑(TOP)24 500~700평/1포, 엔피코명품NK 300~600평/1포 시비

※ 풍농 자료 인용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 KG케미칼(주)

### ○ 하천 환경정화 사회공헌활동

KG케미칼은 자사 임직원들이 울산 구량천 일대에서 환경 보전을 위한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시 울주군 소재 친환경 소재 전문기업인 KG케미칼은 지역민들의 상수원 역할을 하는 구량천 일대에서 하천 주변 곳곳에 버려진 스트로폼, 플라스틱 및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사회 공헌활동을 진행했다.

KG케미칼은 전국 정수장에 정수약품 공급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KG케미칼 임직원들은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매달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인 울산 구량천과 대곡천 인근에서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지역 정수장과 협의해 정화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익 KG케미칼 대표는 “KG케미칼은 환경 정화활동 등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면서 “존경받는 기업, 자랑스런 회사가 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G케미칼은 친환경 소재 전문기업으로 고효율 하수처리제를 비롯해 유기질 비료, 미생물 제제 등 친환경 농자재 생산, 차량용 요소수 등 친환경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2022. 4. 20. 뉴시스 기사내용 인용

## 2 협회 주요 활동

- 2022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6.24)
- 비료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제출(농식품부)
-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상황 및 당면 현안 대처(수시)
- 농식품부 비료 지원 관련 회의 참석(6.14)

## 3 무기질비료 관련 동향

- (기획재정부)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국회 심사 과정에서 2.8조원 증액(지출 증액 2.6 + 감액사업 재조정 0.2)
  - 추경규모가 일반지출 기준 36.4 → 39.0조원으로 확대
  - 국채상환 규모는 9.0 → 7.5조원으로 조정
    - 비료·사료가격 인상분 지원 확대,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등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0.2조원 증액
  - (농산물) 비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국고지원비율 10→30%로 확대(+1,201억원)
    - \* 분담비율 : (정부안) 정부 10%, 지방 10%, 농협 60% → (확정) 정부 30%, 지방 20%, 농협 30%

※ 2022. 5. 2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 (기획재정부)추경호 부총리,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금일 회의에는 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등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 최우선 과제인 ‘민생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

#### ◎ 정책 대응방향

- ◇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출범 이후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
  - 1차적으로 재정책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추경에 반영, 국회 확정
  - 이외 신속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 관계부처간 협의·조율
    -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사항 등
- ◇ 10대 프로젝트는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

#### ◎ 세부 추진과제

- ◇ (수입원가 절감)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 (할당관세 적용)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 할당관세 적용
    - 나프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인하하고 적용기간 연장
      - \* ① 나프타 ② 나프타용 원유(0.5→0%, ~9월말), ③ 산업용 요소(0% 연장), ④ 망간메탈 ⑤ 페로크롬(2.0→0%), ⑥ 전해액첨가제(6.5→0%), ⑦ 인산이암모늄(6.5→0%)
- ◇ (식재료비 경감)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비료)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30% 지원(+1,801억원)

※ 2022. 5. 2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시행 '22.6.22)

- 적용물품 : 인산이암모늄 (0%)
- 적용시한 : 시행일 ~ 2022년 12월 31일

※ 2022. 6.22. 농식품부 공고

## □ (기획재정부) 4조원 규모 물가안정사업 선별 및 집중 집행관리 실시

이번 회의는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문체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차관 및 조달청장 등이 참석하여,

- 금번 추경에 반영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등 민생안정 사업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
- ▶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각 부처의 재정 사업 중에서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약 4조 원 규모의 사업을 선별하여, 사업별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해나갈 계획
- “공급관리” 측면에서 i)농축수산물 및 ii)원자재 수급안정, iii)생산자 비용부담 완화\*, iv)생산·유통구조 개선 등 4대 분야 사업을 선별

\* iii) 생산자 비용 부담완화에 비료 가격안정지원(1,801억원) 포함

※ 2022. 6. 1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 러시아 "4월 비료 수출 40% 감소"... 국제 비료가격 상승 예고

러시아의 지난 4월 비료 수출이 40% 감소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비료생산자협회(RFPA) 회장인 안드레이 구레프는 16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비료 수출량이 올해 초부터 약 20% 줄었다"며 "지난 4월엔 수출량이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은 수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마다, 제품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현재 월 평균 300만t의 절반 수준을 공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서방 제재 압박에 잘 대처할 경우 연내에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기업들이 제재 압박에 대처하고 선적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우리는 정상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일 300만t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막심 레세트니코프 경제개발부 장관은 앞서 "현재 비료와 에너지 시장 상황은 글로벌 가격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며 "비료 및 에너지 운송업체 가격 상승 문제는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란 현실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2. 6. 17. 한국무역신문 기사내용 인용

## □ 농식품부, 비료 관리 강화 위해 제도 미비점 개선·보완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우량비료 지정 및 통합폐업신고제 서식 보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가 비료 관리 강화 목적의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크게 여덟 가지며, 오는 1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관련 업계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우량비료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지정 기준을 3개 분야로 세분화했다. 우량비료 지정을 위해 기존에는 재배시험성적서와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농업 생산성 증대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농업환경·토양 보호 △농업 생산성 증대 △온실가스 감축 등 신청 분야별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또 비료 가격표시에 대한 세부기준 고시기관도 변경했다. 비료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의해 비료 보증표시 및 판매 관리 등의 권한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추가로 위임된 만큼 비료 가격표시에 관한 고시 권한도 농촌진흥청장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바뀔 예정이다.

아울러 비료관리법에 비료생산·수입업자 및 사용자가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하여 공급·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선 해당 기준을 1,000㎡당 3,750kg으로 설정한다. 이는 농촌진흥청의 작물별 비료 사용 처방을 바탕으로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양 복원을 위해 긴급히 토양개량제를 사용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한편 개정안은 이밖에도 비포장 비료의 신고 절차·서식을 비롯해 미신고 및 거짓 신고자에 관한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했으며 비료 유통·공급·운송 및 보관·사용 단계에서 유실·비산 및 악취 방지를 위한 관리기준 또한 새로 마련했다.

※ 2022. 6. 5. 한국농정 기사내용 인용

## □ (환경부)가축사육 하천 수질오염인자는 유기물, 질소, 잔류항생제

### ○ 가축분뇨 발생량과 유기물 등 하천수질오염 인자 상관성 확인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가축분뇨실태조사 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 가축밀집사육지역의 하천 및 지하수 수질 분석 결과에서 가축분뇨 발생량과 연계된 유기물, 질소, 잔류항생제 등 3개 하천 수질오염인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1980년대 이후 축산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 하천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하천 수질오염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축밀집사육지역인 경기도 안성·용인시 청미천 유역과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천 유역을 대상으로 하천 및 지하수 수질을 조사했다.

- 분석 결과, 유기물질인 총유기탄소(TOC), 총질소, 잔류항생제가 주요 하천 수질 영향인자임을 확인했다. 조사대상 유역 내 하천 수질이 지하수 수질에 비해 가축분뇨와 상관성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 특히, 잔류항생제의 경우 하천에서 액비 살포량이 많을수록(109% 증가) 21개 항생제 누적 농도가 높아지는(51% 증가) 경향을 보여 축산농가의 항생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축분뇨 처리 및 재활용 비율에 따라 가축분뇨 상관성이 하천 질소계열 항목(총질소,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질소)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가축분뇨 개별정화처리시설 비율이 높았던(34%) 광천천 유역에서 질산성질소와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023년까지 가축밀집사육지역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등과 상관성이 높은 잔류항생제 및 질산성질소 안정동위 원소를 이용하여 오염원 기여율 평가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 2022. 6. 13. 환경부 보도자료

## □ (농식품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삭제하여, 비료공정규격의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기준만 충족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 (현행) 질소 함량 0.1% 이상이면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 (개선)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7월 3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누리집(국민소통 → 법령정보),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2022. 5. 29. 농식품부 보도자료

## □ 강민국, 납품단가연동제 의무화 하도급법안 대표 발의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최근 원재료 가격 폭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 제도로, 제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납품단가 도입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납품단가연동제 대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으며, 당선 이후 강민국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사업자 간 이뤄지는 계약서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 민주화의 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해 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 위원회가 원재료가격 변동에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품목, 가격 기준 등 대통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해당 조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2022. 6. 12. 뉴스경남 기사내용 인용

## 4 농정 이슈

### □ (농식품부) 차관 주재 매일 수급상황 점검, 「농식품 수급상황실」 설치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농식품 수급을 총괄하는 전담팀인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설치하고, 오늘부터 김인중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농식품 물가가 많이 올라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농식품 수급 안정을 위해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 수급상황실」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여 총괄반과 품목별 5개반(노지채소반, 과수반, 축산물반, 식량·국제곡물반, 식품·외식반)으로 구성되었다.

※ 2022. 6. 21. 농식품부 보도자료

### □ (기획재정부)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팀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5.30일)’,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6.19일)’ 등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숨가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유류세를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국민들께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공정위 등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정유업체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체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여름철 가격 변동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수급·가격변동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 조기방출과 함께 부족분 발생시 긴급수입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 적용물량 수입을 독려하여 시장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료·비료 매입비 지원 등 원가 절감 효과가 국민들께 온전히 돌아가도록 현장방문 조사, 업계 간담회, 할인행사 등을 통해 세밀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2022. 6. 2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 (사설) 쇠퇴한 세계화, 식량주권 확보가 살길이다

매년 초 스위스에서는 전 세계 경제인, 정치인들이 모여 경제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스위스의 다보스 지역에서 열려 ‘다보스포럼’이라고도 부르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오랜만에 다시 개최됐다. 올해 세계경제포럼 이슈의 중심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는 탈세계화와 전 세계 식량위기가 임박했다는 우려였다.

100일이 지나며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적인 식량 생산에서부터 물류, 원자재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수출규제로 식량 가격은 큰 폭으로 변동하고 식량 위기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증가는 식량위기를 더욱 촉발시키는 중요 요인이다.

시카고선물거래소의 밀, 옥수수, 대두 등의 선물가격은 연일 상승하며 세계 곡물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지금 현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비료 등 주요 원자재가격은 향후 농업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급등한 원자재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생산량이 줄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 먹거리 불안 상황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와 식량가격이 동시에 급등한 이 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예측 불가능한 위기상황은 기반이 취약한 곳을 쉽게 흔들어버린다. 식량위기는 식량공급의 최상위에 있는 선진국보다는 수입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 줄 것이다. 유엔세계식량기구(WFP)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8억1,100만명이 여전히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해 기아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현재 기근상태의 세계 인구는 전쟁과 분쟁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으로 식량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굶주리고 고통받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두번째로 2030년까지 제로헝거(Zero Hunger)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분쟁, 재난, 구조적 불평등은 쉽게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한 저소득 국가 국민들은 앞으로 일어날 식량위기 최전방에 위치해 있다.

현재는 식량의 부족함이나 공급에 문제가 없는 한국에서 국제기구 등의 식량위기 우려가 와닿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사료용을 포함한 식량자급률이 20.2%이며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식량자급률인 한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식량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식량자급률로 증명됐다. 전 세계의 우려 속에 식량과 에너지는 이미 무기화돼 버렸고 식량주권을 갖지 못한 국가는 위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식량위기, 기후위기 시대 식량주권을 확보할 방안이 마련돼 있을까. 신냉전의 시대로 규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국민을 지킬 식량주권 확보 방안은 주력사업이 돼야 한다. 식량주권 확보는 국내 생산기반 안정 방안 마련과 농민의 보호·육성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세계는 이미 지역화되고 있고 자국에서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우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 2022. 6. 5. 한국농정 기사내용 인용

### □ 2022년산 벼 재배면적, 최대 1.7% 감소 전망

올해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최대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최근 발표한 '쌀 관측 6월호'에 따르면 2022년산 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4~1.7% 감소한 72만~72만2000ha로 나타났다.

올해 쌀 생산조정을 위해 3만2000ha 규모로 타작물재배 전환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농업관측센터의 지난 5월 11~17일까지 2022년산 모 생육상황 조사 결과 평년보다 좋다는 의견이 20.1%로 나뉘며 6.8%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농협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들의 2021년산 쌀 재고가 많아 쌀값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지 쌀값은 내림세가 계속돼 5월 전국 산지 평균가격은 20kg 기준 4만 674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3%, 지난해 수확기(10~12월 평균) 대비 13% 이상 각각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 4월 17일 정부의 추가 시장격리 발표 후 가격 하락폭은 소폭 둔화돼 전월 대비 가격락률은 3월 1.6%에서 4월 3.8%로 뛰었다가 5월 2.3%로 하락했다.

※ 2022. 6. 3. 전업농신문 기사내용 인용

## 5 무기질비료 수급상황

### □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단위 : 천톤, 누계)

|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1년 4월말 | '22년 4월말 |
|-------|-------|-------|-------|----------|----------|
| 생 산 량 | 2,319 | 2,142 | 2,287 | 917      | 821      |
| 출 하 량 | 2,218 | 2,054 | 2,319 | 897      | 820      |

※ 협회 회원사 기준

### □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입가격 및 환율

(단위 : \$/톤, 원)

| 구 분            | '19년     | '20년     | '21년     | '21년 5월말 | '22년 5월말 |
|----------------|----------|----------|----------|----------|----------|
| 요 소            | 313      | 289      | 445      | 371      | 851      |
| D A P          | 380      | 326      | 552      | 558      | 848      |
| 염화칼륨           | 350      | 296      | 317      | 277      | 659      |
| 환 율<br>(매매기준율) | 1,165.65 | 1,080.27 | 1,143.96 | 1,123.28 | 1,269.88 |

※ 관세청 무역통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인용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6 무기질비료 우수성 홍보

### □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를 강화시키는가?

글로벌 식량위기로 인해 국제 식량가격이 두 배가량 상승함에 따라 구매력이 없는 최빈국의 기아 인구는 증가했으며, 저개발국가와 선진국 공히 정치, 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사회적 불안이 높아졌다. 이러한 식량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G20 정상회의, FAO 총회, OECD 농업관련 회의 등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WTO 체제하에서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접근방식은 식량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 케언즈그룹 등 식량 수출국들은 시장개방과 관세인하를 통한 식량의 자유로운 교역이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제고하는데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 일본 등 식량 수입국들은 국내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자급률 확보가 식량안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식량 수출국들은 시장개방을 통한 식량의 자유로운 교역은 식량을 국내생산에만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량안보 확보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식량안보는 가용성, 접근성, 활용성 등이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식량안보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강구될 수 있고 국내 식량생산에만 집중하는 것은 다른 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는 가뭄, 홍수, 인플레이션, 실업 등으로 다양하며 심지어 식량생산이 감소되지 않아도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 수입국들은 식량 수출국들의 수출제한 조치나 수출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여 오히려 더 큰 식량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식량 위기 당시 다수의 식량 수출국들은 주요 곡물과 농산물에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OECD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이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가 국제 식량가격 상승폭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제 농산물 공급을 교란시켜 국제시장을 통한 안정적 식량조달이라는 정부 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식량자급률은 식량안보를 강화시키는가?'라는 연구에서 국내 식량자급률 확보가 식량안보를 강화한다는 제한적 결론을 얻었다고 했다.

WTO 체제는 모든 무역장벽을 허물어 재화와 서비스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바탕으로 추진되어 왔다. 대다수의 농산물 수출국은 식량안보 역시 무역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두 차례의 글로벌 식량위기 당시 발생한 곡물 파동은 자유무역을 통한 식량안보의 확보가 허구였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출국들이 곡물 수출을 중단해도, 수입국에서 심각한 식량폭동이 발생해도 WTO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였다.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량위기와 같은 위험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의 경우 이러한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식량자급률 법제화, 수입선 다변화, 식량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다양한 정책조합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경제 제42권 제4호('19. 12.)

## 7 이달의 주요 인사

### □ 농식품부 인사(2022.6.2일자)

#### ○ 농기자재정책팀 비료담당

서정우 사무관 → 이홍숙 사무관  
( → 방역정책과 ) ( 前 식량정책과 )

## 8 회원사 제품소개

### □ 남해화학(주)



- 제품명 : 슈퍼솔 밸런스
- 성분량 : 19-19-19+TE(미량요소)
- 특성 및 효과
  - 고품질 원료를 사용하여 물에 잘 녹으며 작물 흡수가 빠름
  - 질소, 인산, 칼리가 균형적으로 높게 함유되어 있어 생육 증가에 적합
  - 영양 및 생식을 균형화

### □ (주)조비



- 제품명 : 이편한S
- 성분량 : 26-6-7+1+0.1+아미톤 (완효성함유)
- 특성 및 효과
  - 완효성비료가 함유되어 있어 가지거름을 생략할 수 있음
  - 입자가 단단하고 균일하여 축조시비가 가능하여 노동력과 비용이 절감
  - 대사활성물질 아미톤함유로 초기생육이 좋음
  - 저인산 형태로 인산 과다로 인한 이끼/괴불 발생을 예방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식량과 비료

-2022년 6월호-

## □ (주)카프로



- 제품명 : 유안비료(황산암모늄)
- 성분량 : 질소 20.5%, 유황 24%
- 특성 및 효과
  - 녹거나 굳어지는 일이 적어 수송이나 보관하기 좋고 물과 토양중에서 잘 녹으며 암모니아태 질소로서 화학반응 없이 벼에 직접 흡수되므로 요소보다 질소 흡수율이 높음
  - 채소, 과수와 같은 유황을 다량으로 요구하는 작물에 효과가 큼

## □ (주)팜한농



- 제품명 : 롱스타플러스
- 성분량 : 21-7-10+1+0.1
- 특성 및 효과
  - 축조시비기를 이용한 시비가 가능하며, 1회 시비로 생육 후기까지 비효가 지속
  - 질소 뿐만 아니라 출수 후 등숙기에 필요한 칼리까지 코팅하여, 등숙율과 완전미율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이 가능
  - 100% 순수 국내기술로 자체 생산한 제품

## □ (주)풍농



- 제품명 : 엔피코명품NK
- 성분량 : 18-0-(10), 고토1, 붕소0.2, 황산칼리 함유
- 특성 및 효과
  - 벼 이삭거름용 비료로서 질소, 칼리, 고토, 붕소 등 함유로 벼이삭을 충실히 여물게 함
  - 벼 생육중기 이후에 균형있는 양분공급으로 이삭수 확보 및 미질향상 고품질 쌀 수확
  - 고토, 붕소, 유황 등 함유로 등숙율 향상과 생리병예방
  - 균일하고 단단한 입자형태로 기계살포 등 시비가 편리하고, 쌀 농사 마무리용 비료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 □ (주)한국협화



- 제품명 : 땅심엔케이
- 성분량 :
- 특성 및 효과
  - 토양개량에 좋은 규산, 석회함유 비료
  - 벼의 내병성을 증대시키고, 등숙율을 향상
  - 과채류, 엽채류, 과수작에도 사용가능

## □ (주) 세기



- 제품명 : 원샷추비특호
- 성분량 : 13-0-[13]+3+0.3(황산가리 함유)
- 특성 및 효과
  - 생육중기 이후 필요한 성분을 속효성으로 공급해 줌으로써 작물의 후기생육에 효과적인 웃거름 전용비료
  - 황산가리가 함유되어 맛, 때깔, 저장성을 높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가능

## □ KG케미칼(주)



- 제품명 : 엔케이도BS
- 성분량 : 28-0-12+1+0.1
- 특성 및 효과
  - 규산 가용화 미생물 효과로 도복경감 및 품질향상
  - 미질을 향상시켜주며 측조시비에 편리
  - 다량 질소 함유로 시비량을 감소시키고 노동력이 절감됨

※ 무기질비료 사용 안내서 인용



# 식량과 비료

-2022년 6월호-

KFA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